

# 문화전당재단 경영진 ‘자진사퇴’ 형식 해결책 모색해야

### 광주시민단체, 문체부 차관 면담 “인사파행 절차해지” 촉구 이병훈 국회의원 “지역의원 의견수렴 중앙당·문체부에 전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정상화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문화단체 대표들은 3일 오후 김현환 문화체육부 제1차관을 면담하고 “최근 단행한 문화전당재단 인사 파행에 대한 절차해지 차원의 해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4일 ‘아시아문화전당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열어 이번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법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어서 향후 인사 파행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이번 인사가 문화전당재단 위상과 역할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절차상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인사 파행에 대한 지역 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인사 과정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순 없지만 보기에 따라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영진이 이미 임명된데다 “면직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임명 철회를 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한 것

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와 시민문화예술계를 비롯해 아홉개 개정을 받고 이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꾸려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등 민·관·정 모두 부적합한 인사라고 지적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초대 이사장과 사장 선임과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모두 문화, 경영·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지역현안에도 정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전당재단을 이끄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체부가 밝힌 “문화전당재단을 이끄는 적임자”라는 평가에 대해 시민단체가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공식 전달함으로써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사로 대두된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번 인사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질 방침이다. 이들은 “문화전당재단 설립추진단 대 인사의 말을 인용해 ‘신임 경영진이나 이사에 대해 단 한번 추천을 요청받거나 인사를 두고 논의한 적 없다고 말한다’는 사실을 문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문화전당재단 창립총회 당일 설립추진단에 신임 경영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했으며 추진단이 선임에 동의했기에 정상적인 추천 절차로 이해한다는 뜻을 시민단체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사실상 문체부가 내정한 인사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한 것’이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체부에 절차해지 차원의 해법을 촉구하지만 비상임 명예직인 이사장은 차치하더라도 경영을 책임지는 전당재단 사장은 ‘자진 사퇴’ 형식이라도 취해 해결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4일 열리는 아시아문화전당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와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할 계획이며, 조성사업을 문체부 재직시절부터 주도했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은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체부와 중앙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문체부 측에서 김현환 제1차관, 정향미 지역문화정책관, 이정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유지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부단장이 참석했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박종화 시민연대 상임대표, 윤만식·박재만 시민연대 공동대표,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포럼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알립니다

## ‘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 문화강좌

광주일보사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재)호남문화재단연구원과 ‘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를 주제로 한 문화강좌를 공동 개최합니다. 최근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마한(馬韓) 역사문화권에 광주지역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지역 고대사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넓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70년 역사의 광주일보와 문화재 발굴·조사 연구 기관을 선도해온 호남문화재단연구원이 개최하고 고고학·고대사 석학과 전문가가 강연하는 문화강좌에 독자과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장소  
- 2022년 3월 4일~6월 24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8층 다목적 강당)
- 강사진  
임영진 호남문화재단연구원 이사장, 임상택 부산대 교수, 이영문 목포대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 교수, 박양진 충남대 교수, 최중택 고려대 교수, 노중국 계명대 명예교수, 이성주 경북대 교수, 이영식 인제대 명예교수, 박중환 전 국립나주박물관장, 김경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문안식 동아사이아사문화연구소장, 차용걸 충북대 명예교수, 정재윤 공주대 교수
- 수강신청  
호남문화재단연구원 (www.hmy.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2월 22일까지 이메일 (hnmhjkw@naver.com) 접수
- 문의 : 호남문화재단연구원 기획사업실 (전화번호 061-383-3640)

光州日報社·(재)호남문화재단연구원



전남도가 우수 지역축제 육성으로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전남 대표축제 10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 전남도, 지역 대표축제 육성 관광 경쟁력 강화한다

###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등 10개 선정 프로그램 차별화, 안전·경쟁력 강화

전남도가 우수 지역축제를 육성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전남 대표축제 10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전남 대표축제는 ▲목포항구축제 ▲여수 거북선축제 ▲순천푸드엔터테인먼트 ▲곡성세계장미축제 ▲해남미남축제 ▲무안연꽃축제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

장성 황룡강노란꽃잔치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등이다.

대표축제는 축제심의위원회 20명의 심의위원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축제 활성화에 높은 축제를 기준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국화를 소재로 다양한 연출이 이뤄지고, 국화동호회 등 지역주민의 참여가 많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수거북선축제와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내실있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는 평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축제가 비대면으로

열리거나 취소됨에 따라, 이번 평가에는 언택트 프로그램 도입, 온라인 전편 전환 또는 온·오프라인(하이브리드) 개최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평가지표에 새롭게 포함했다.

선정된 대표축제는 코로나19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축제장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시도와 차별화한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전남도는 대표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도록 돕기 위해 해당 사·군에 각 2000만원을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공무원 2132명 신규 채용 사상 최대

### 지난해보다 159명 증가...6회에 걸쳐 공채·직렬별 구분 선발

전남도가 2022년 지방공무원 2132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는 지난해 1973명보다 159명(8%)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인원이다.

직렬별 모집인원은 행정직 843명, 사설직 272명, 사회복지 175명 등 29개 직렬에서 2132명을 선발한다.

직급별 모집인원으로는 행정·수의 7급 94명, 간호·보건진료 8급 64명, 행정·농업·시설 등 18개 직렬 9급 1898명, 연구사 41명, 지도사 35명이다. 지난해보다 7급은 64명에서 94명으로 30명 늘었고, 8·9급은 1830명에서 1천962명으로 132명이 증가했다. 연구사와 지도사는 79명에서 76명으로 3명 줄었다.

올해도 사회 소수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203명, 저소득 52명을 별도 전형으로 채용한다. 특히 국가유공자 27명, 고졸자(예정자 포함) 56명을 대폭 확대한다.

신규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연구직과 일부 기술직은 필수자격 등 응시자격이 필요한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치른다.

총 6회에 걸쳐 공채·경채, 직렬별 등 구분 실시할 예정이며, 가장 큰 규모는 6월 18일 실시하는 제3회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1710명을 선발한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시험과목 개편 등 달라지는 임용시험제도에 대해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변경 내용은 ▲필기시험 고교과목 폐지 및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화 ▲연구사 응시자격 학력기준을 학사에서 석사 이상으로 강화 ▲농촌 지도사 농업직류 선발 방식을 지역 구분에서 동일괄 모집으로 변경 ▲운전직(보훈청 추천) 응시자격 중 ‘실무경력 1년 이상 조건’ 폐지 등이 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중개환영. 010-8902-7900

**제일오피스텔 금매**  
수기동, 20층 중 8층, 33평, 코너  
시세 1억-금매 8천만원, 1/31까지  
소유자 직매. 010-9469-86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철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 적벽돌외벽 스타브룸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면 조정용 20여년생 8층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철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층)**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정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 9십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응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 휴양지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사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유희플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대영공인중개사 김용주** 010-3454-2389

**판결 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고정16 수산업법위반등
- 피고인 : 서홍렬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년 2월 3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우진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2년 2월 3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을 금 790,000,000 원 중 금 29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 50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 79,000 주 중 29,000주를 5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안에 이의를, 구주권을 가진 주주는 구주권을 본 회사에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4일  
문화종합건설 주식회사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20  
대표이사 임종산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신문부  
062)227-9600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